

## [ 오피니언 ]

## 금남로에서



정재현

며칠 전 국내 한 일간지의 기사(중앙일보 7월 18일자)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견 기업인 A 사장의 피눈물 나는 사연이다. 그는 지난 2004년 평생 소원인 나노(10억분의 1m) 섬유의 상용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세계 최고 기술개발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시제품을 본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퉈 제품 주문을 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골드먼삭스는 7천300만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하기까지 했다.

## 기업인의 피 맷힌 절규

하지만, 그의 기쁨은 잠깐이었다. 전안에 있는 한 국가공단에 공장 설립을 신청했으나 화학업종으로 환경오염이 걱정된다며, 시청 내 모든 과에 관련 서류를 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간이 빨라야 1년이라고 했다. 환경오염 물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주문이 밀려 당장 공장

을 지어야 한다는 하소연은 통하지 않았다. 하루가 급한 그는 전라도 등 10여 곳의 지방공단을 뛰어다녔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전안과 같았다.

## 투자 유치, 공무원이 열쇠다

A 사장은 한국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 근교 국가공단을 찾았다. 마닐라 당국은 보고서만 보고 2주 만에 설립허가를 내줬다. 한국에서 1년이 소요되는 공장설립이 2주 만에 해결된 것이다.

지금 국내 지자체는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투자유치단 등 기업과 자본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단체장이 전투지휘하고 있다. 단체장의 제 일상(제 1회)은 열이면 열 모두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다.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투자유치에 나

서는 것은 기업유치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는 중학생 정도면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의지와 실천이다. 말로는 기업 지상주의를 외치면서도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중앙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이 지방의 일선 행정조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하나다. 아직도 지방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십개의 도장과 수백 장의 서

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전담 부서는 기업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부서 공무원의 역할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단체장 발상 전환 시급

따라서 단체장은 투자유치 부서의 인력과 기구를 대폭 강화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히 제공해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 신명나게 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또한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부서를 단체장 직속기구화 해야 한다. 책임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투자유치에 관한 한 모든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량권을 줘야 한다. 지금처럼 환경·복지·건축·노동·농지 등 관련 부서마다 상충되는 규정과 법을 들이대서는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올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A 사장은 공무원의 꽉 막힌 태도를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정말 걱정됐다고 했다. 투자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변화가 없으면 광주·전남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 jhjung@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온펜칼럼



심상돈

연일 폭염 및 열대야에 시달리는 요즈음 프랑스에서는 자전거 경주가 학창이다. 이를하여 '루드 드 프랑스(Tour de France)'. 루드 드 프랑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프랑스 전역을 자전거로 일주를 하는 경기로 세계 최고의 자전거 레이스이다. 매년 7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그다지 인기 있는 경기가 아니지만, 이 루드 드 프랑스의 인기는 유럽 및 중남미 지역에서는 하늘을 찌른다.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은 루드 드 프랑스를 올림픽이나 미국 수퍼볼, 월드 시리즈보다 한 수 위인 세계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로 꼽는 것 같아 주지하지 않는다. 1903년부터 개최되는 프랑스 도시와 마을의 그림

## 루드 드 프랑스와 무임승차

되어 있는 전통 있는 레이스로 대략 3주 정도 진행된다. 전체 코스는 3000~4000 Km 정도로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서울과 부산사이의 거리를 약 4회 정도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 거리이다. 출발지점도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리 서쪽에 있는 한 도시에서 출발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프랑스를 일주한 뒤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거리에서 끝난다. 하지만 이 경기는 힘들 이유는 단지 장거리 주행 탓만은 아니다. 경기 코스는 평지 도로 뿐만 아니라 해발 2000미터가 넘는 알프스, 피레네 산맥의 가파른 산악 도로까지 포함하고 있다. 경사진 도로 위에서도 선수들은 철새없이 페달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평평한 길 위에서도 평균 시속 50 Km 라는 엄청난 속도로 5~6시간 정도를 달리는 극한 체험을 하게 된다. 장기간 동안 험난한 길을 달려야 하기에 출전자들 중 상당 수는 과도한 체력소모와 크고 작은 부상, 사고 및 컵디션 난조로 도중하차하고 만다. 매년

같은 경치를 선수들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기를 유심히 보다 보면, 프랑스의 아름다운 경치만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를 탄 선수들이 고리에 고리를 물고 무리지어 달린다. 드래프팅이라는 것이다. 앞서가는 선수의 도움으로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 약 30~40% 정도의 체력을 비축하여 결승점을 앞두고 마지막 스피드 때 팀주장이 최고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팀플레이의 방법이다. 고난이도의 기술로 차지 잘못하여 앞 주자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출렁이 넘어지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도 제 2구간에서 마지막 3Km를 남겨놓고 20~30명이 한꺼번에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암을 극복한 인간 승리 랜스 암스트롱도 아마 드래프팅이 없었다면 대회 5연승이라는 대 기록도 불가능 했을지도 모른다.

이토록 중요하고 어려운 팀플레이의 기술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임승차가 생 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동아일보 원장·2006년 11월수상자>

온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온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 담배 판매 거절당한 학생, 노인 시켜 구입하다니 '괘씸'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은 20세인데, 어떻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을까.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복권 번호를 고르고 있는데, 대충 봐도 학생으로 알 수 있는 남자가 사복을 입고 담배를 달라고 했다. 주인이 신분증이 없으면 안 된

다고 하자 대학생이라고 했다.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계속 담배 팔기를 거절하자 그냥 나갔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할아버지가 담배를 사러 왔다. 담배 가격도 몰라 나간 뒤 살펴보니 방금 산 담배를 조금 전 학생에게 건네주는 것 아닌가. 학생의 행위가 너무 괘씸했다.

▲이재진·광주시 북구 생용동

## 새차 악성 냄새·발생물질 규제기준 만들었으면

얼마전 1천500cc급 자동차를 샀는데, 차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가 너무 심했다. 영업사원은 새차를 사면 나는 냄새라고 했다.

각종 페인트 냄새가 범벅이 돼서 코를 자극할뿐 아니라 1시간 정도 타고 나면 머리가 아파고 눈도 따가워졌다.

지나치게 예민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2달 정도 차를 세워놓고 냄새가 빠지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뜨거운 햇빛에 내놓고 차 문을

열어 냄새를 뺐다. 최근 국산 자동차의 새차 증후군이 외국 기준보다 20배 이상 심각하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런데도 이 새차에서 나오는 악성 물질을 규제할 근거조차 없다고 한다.

새차에서 나오는 물질은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한다.

새차의 악성 냄새와 발생물질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유용학·광주시 서구 덕흥동

## 시설

## 정부, 'J프로젝트' 발목 잡는 이유 뭔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전북 새만금과 충남 태안 등 인근 서해안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서는 최근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어 J프로젝트가 차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J프로젝트는 사실상 개발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전남도는 당초 올해 말까지 관련부처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내년 실시계획을 수립해 2009년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J프로젝트 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부지(간척지) 확보부터 난관에 처해 있다. 간척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농림부가 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자와 양도·양수를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문광부는 전남도가 내년도 국고예산에서 간척지 매입비로 요청한 360억원 가운데 단 한푼도 반영

## 탈레반 무고한 인질 살해 당장 멈춰야

탈레반이 한국인 인질 1명을 추가로 살해했다. 지난달 25일 배형규 목사에 이어 달세 만다인. 봉사활동을 위해 그곳에 간 무고한 인명을 납치하고 그것도 부족해 무참히 살해한 탈레반의 만행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탈레반 무장세력이 지난달 30일 협상 시한이 지나자 억류하고 있는 22명의 한국인 인질 가운데 심성민씨를 추가로

살해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용서받지 못할 악만적 범죄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전상대도 아닌 다른 나라의 비무장 민간인을 납치해 살해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살인 행위이다.

탈레반이 추가로 심성을 살해한 것은 '수감 동료'와의 맞교환을 거부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탈레반이 요구하는 인질 맞교환은

## 無等鼓

전경련이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경제교과서도 폐내년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결정적 이유는 시장경제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 때문이다. 신입사원 면접 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경제인들의 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경련과 함께 고교 생활 경제교과서를 폐낸 뒤 일부에서 반발하자 일선 학교 배포를 철회했다. 하지만 이 교과서는 현재 폭발적 인기를 누린다. 그만큼 시장경제 교육에 대한 갈증이 커다란 것이다.

경제 교과서는 시장경제제도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고 시장 참가자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유로이 거래를 하는 경제제도를 일컫는다. 다만 시장의 실패 맨 자체 수습이 어렵고 공공 생산이 불가능해 국가의 개입 없는 완전한 시장경제제도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시장경제제제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경제교과서의 공급은 경제생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 다행스런 일은 아닐 수 없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 기고



고영만

WTO(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역협정이 체결·발효된 곳은 200여개에 달하고 있다. 세계무역의 절반 이상이 지역협정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아세안, 싱가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고, EU 등 많은 지역 또는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공동연구중에 있다.

또 우리나라가 항후 10년 내에 FTA 체결국이 60여곳에 이르며, 이를 국가와의 무역은 전체 무역의 80%를 넘어 확대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업계가 FTA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생산원가 절감과 함께 채산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서 수출가격의 4.7%를 절감하게 된다. 이는 수입, 임가공, 수출 등 전 과정에 걸쳐 FTA의 혜택을 받을 경우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A사는 미국 도입가격을 FTA 전 90달러에서 FTA 후 74달러로, 18%나 낮출 수 있다.

물론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업계가 FTA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생산원가 절감과 함께 채산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는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단순한 모델에서부터 FTA 원산지 기준을 활용한 개성공단 임가공 혹은 해외 생산 모델, 그리고 국내외 기업간 합작 투자·협력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의 개발 방식이나 효율적인 활용방법 등은 이제 각 기업들의 뜻이 됐다.

따라서 무역업계는 정부 및 무역협회를 비롯한 관리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FTA관련 국별·품목별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각 기업에 적합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5121〉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분석부 2200-628	판매부 2200-551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디자인부 2200-536
〈F A X 222-4267〉	총무부 2200-570	서울지사 02-773-9331